

200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을 위한 심포지움

- ◆ 일시 : 2008년 1월 8일(화) 오후 2시
- ◆ 장소 :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문학강연장)

주최 /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센터,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후원 / 전주시

200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을 위한 심포지움

- ◆ 일시 : 2008년 1월 8일(화) 오후2시
- ◆ 장소 :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문학강연장)

주최 /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센터,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후원 / 전주시

일 정

● **개회** 14:00~14:10

국민의례
발표자소개

● **주제발표** 14:10~15:00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
/ 채병선(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그 의미
/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 **휴식** 15:00~15:10

● **종합토론** 15:10~16:30

<사회> 이종민(전북대 교수,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장)
<토론> 고언기(전주시 전통문화진흥과 과장)
김한봉(완산동용머리살리기 추진위원장)
김현숙(전북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김천환(전주시 도시계획과 과장)
유대수(사단법인 문화연구 '창' 연구위원)
허길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목 차

-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 ----- 01
채병선(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그 의미 ----- 17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가장 한국적인 도시

2008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

2008. 1

전 주 시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통문화 육성에 대한 전주의 가능성

- 정부에서는 한스타일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6대 핵심분야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을 선정
- 전주는 한식(한정식, 비빔밥 등), 한옥(한옥마을), 한지(한지축제), 한국음악(세계소리축제, 대사습놀이)분야에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전통문화도시의 기반 강화

- 전주는 후백제 왕도, 조선 발상지, 한국천주교 최대성지, 동학농민군 전투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의 현장으로 역사자원 풍부
- 조선시대 전라도의 중심도시로 유·무형의 전통생활문화 자원 폭넓게 분포
- 전통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세계화시대 도시경쟁력 확보 가능

☉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시 가꾸기 추진

-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전문가·시민단체·행정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주시 특화발전 계획으로 마련되었음

3.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역사·문화자원의 발굴·활용을 통한 전통문화의 생활화

- 도시의 상징인 도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 동학농민혁명 등 역사적 사건의 발굴과 활용을 통한 관광기반 마련
- 민속문화 및 역사적 장소성의 보전·정비를 통한 지역정체성 강화
- 전통문화 도시 가꾸기 사업을 도심활성화 사업과 연계

☉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전통성 부여

- 주민 참여에 의한 전통생활문화형 도시 가꾸기 추진
-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행정의 지원 강화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가꾸기 추진

-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형 도시가꾸기 기반 마련
-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의 추진
- 주체별 역할의 분담을 통한 전통문화도시 사업의 지속 추진
- 장기적으로는 시민에 의한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활동 지속

4. 사업추진 주체 및 조직 소개

☉ 사업주체 :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 추진협의회

- 1단계에서의 사업 추진은 공공주도의 관·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추진
- 2단계 사업부터는 민·관·전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

☉ 구성체계

- 협의회는 민간, 행정, 전문가 분야로 구성
- 민간 분야는 지역주민, 전주시민,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
- 전문가 분야는 전문가 그룹과 대학교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
- 행정 분야는 전주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 지원



II.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목표 및 특화발전 계획

1) 도시의 미래상

-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Feel Korea in Jeonju)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및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의 비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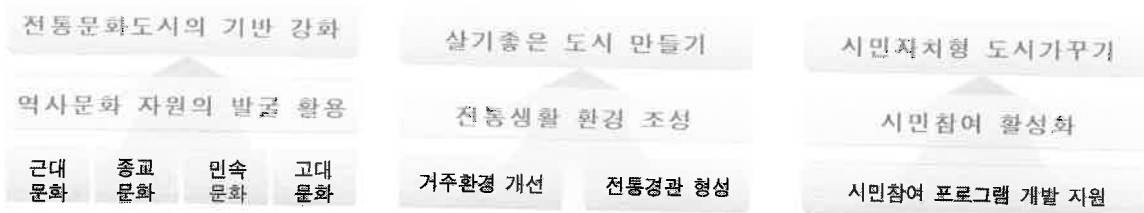
2) 사업의 목표

- 역사, 생활문화, 시민자치가 어우러진 전통문화도시 전주



3) 특화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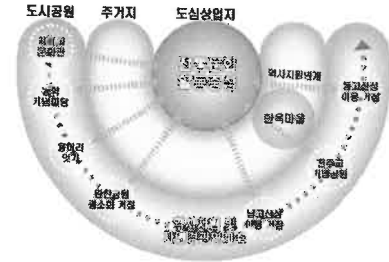
-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활용을 통한 전통문화도시의 기반 강화
- 전통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정주환경 만들기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형 도시 가꾸기



4) 전체 사업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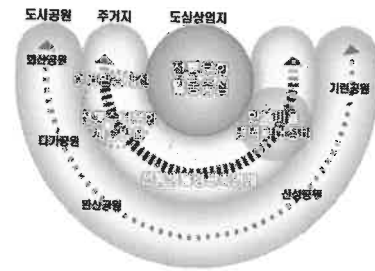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 사업

대상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 기존사업 지속 추진 · 도시공원 : 신규사업 추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활용 역사·문화자원 개발 · 역사자원간 연계 축 확보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반 강화 · 도시공원 연계 축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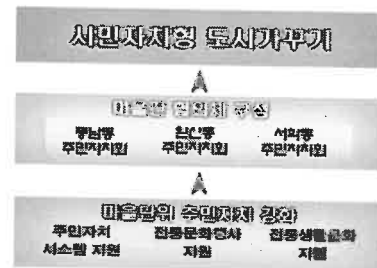
전통 생활환경 조성 사업

대상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주변 주거지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전통가로 경관조성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생활 경관 형성 ·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이미지 제고



시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지원

대상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동 단위 마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자치 역량 강화 지원 · 마을단위 전통문화 활동 지원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활성화 · 공동체성 및 정체성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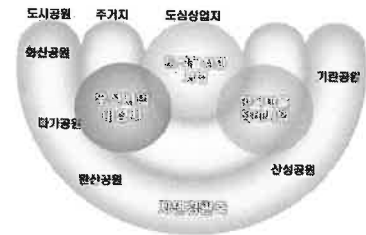


1단계	2단계	3단계
도입기	발전기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산동 대상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확대 · 동간 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민자치형 도시 가꾸기

5) 우선 사업 지역의 선정과 사업내용

우선사업 지역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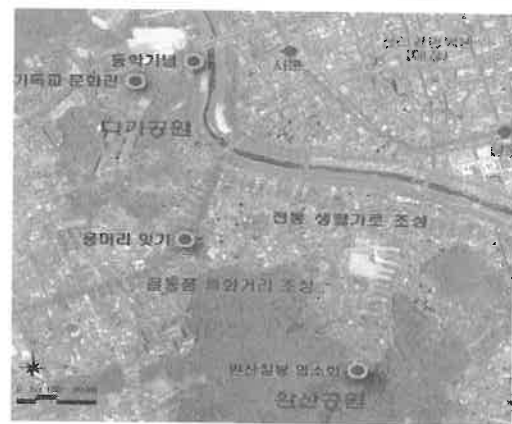
우선사업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산동, 완산공원, 다가공원 일원
선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중 · 역사문화 자원의 잠재력 보유 · 주민참여 활동 활발 · 도심균형발전 도모



우선사업 대상지

우선사업의 내용

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단계
역사·문화 자원 발굴·활용	동학기념사업	동학기념마당, 동학체험루트 조성	1
	용머리 잇기	육교(용오름다리) 건설, 광장(용신마당) 및 기념시설 정비	1
	완산철봉 명소화 사업	편의시설 및 삼림욕장 정비, 방공호 전시·체험공간 조성	2
	기독교 생활문화관	기독교 역사문화 전시관 건립	2
전통 생활환경 조성	전통 생활가로 조성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 쌈지공원 조성 및 조형물 설치	1
	골동품 특화거리 조성	보도 및 기반정비, 쌈지공원 조성 및 조형물 설치	2
	주거문화 계승 발전사업	보존건축물 및 신축·개보수 지원	2
시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전통문화 프로그램 및 마을가꾸기 지원	1
	전통문화학교 운영	어린이 대상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원	1
	마을훈장 육성	훈장교육 및 활동 지원	1



2. 주요 사업 내용

1)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 사업

동학농민운동 기념사업

○ 사업의 배경

- 동학농민군 전주성 전투에 대한 역사적 가치 제고
- 동학 정신의 계승·발전을 통한 전통문화 의식 함양
- 동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관광 활성화



동학농민군은 1894년 4월 용머리고개를 넘어 전주성 서문을 통해 전주성에 입성하여 최초의 주민자치체인 집강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완산철봉 전투에서 패배 후 쇠약해짐.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전투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주요한 사건임

○ 사업의 내용

동학 기념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군 전주성 입성지인 서문 인근 다가공원에 조성 · 광장조성(대동마당, 어울마당, 녹두마당) · 동학기념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동학 체험 순환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군 전주성 전투의 주요장소 연계 · 동학기념마당~서문~집강소(감영)~완산철봉~용머리고개 · 기념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동학 기념마당



동학 체험 순환루트

☉ 용머리 잇기 사업

○ 사업의 배경

- 단절된 용머리 잇기를 통한 풍수지리적 원형 회복
- 전주의 남측 관문이라는 장소적 상징성
- 용머리 잇기를 통한 다가공원 및 완산공원 연계
- 거점시설 정비를 통한 쇠퇴지역의 활성화



용머리 고개는 예부터 전주성 진입부로서 역사적 상징공간이며, 동학군의 전주성 진군 지로서의 장소성도 지짐. 용머리 고개라는 명칭은 완산칠봉의 풍수지리적 형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도로개설 등으로 용머리가 단절되었음.

○ 사업의 내용

육교(용오름다리)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교(용오름다리) 건설을 통한 풍수지리적 원형 회복 · 시가지의 Gate로서의 랜드마크화
광장(용신마당)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용신마당) 조성을 통한 이벤트 공간 제공 · 용신분수, 여의주 상징탑 등 상징조형 시설물 설치

○ 시설 설계의 방향

- 평면 및 입면의 형태는 용의 형상을 상징화
- 광장은 용의 머리와 꼬리의 형태를 바닥패턴으로 사용
- 육교는 용의 형상을 상징화하고, 생태통로의 기능 검토



용머리 잇기 사업 구상도

○ 사업의 효과 및 활용방안

- 역사적, 상징적 공간의 정비로 전주의 정체성 강화
- 풍수지리적 원형 회복 및 도시공원간 연계강화를 통한 이용 편의 증진
- 일상생활과 역사적 공간의 공존에 따른 교육·학습 기회 확대

☉ 완산칠봉 명소화 거점정비 사업

○ 사업의 배경

- 완산칠봉(완산공원)의 이용 증진을 위한 거점공간 정비
- 시민 이용 증진을 위한 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
- 완산칠봉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재조명

완산칠봉은 전주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으며, 근대 이후에는 전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전주의 역사와 함께 해 왔음. 완산칠봉의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거점 정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주차장



체육시설 및 산책로



방공호 입구

○ 사업의 내용

주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차장은 생태 주차장으로 조성 · 화장실 등 휴게 편의시설 확충
체육시설 및 삼림욕장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정비, 삼림욕 기능 도입
전시·체험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공호(민간에서 위탁 활용중(저장고)) 리모델링 · 향후 전시·체험공간으로 정비·활용

○ 사업의 효과 및 활용 방안

- 완산공원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변지역 주거환경의 질 향상
- 향후, 완산칠봉 전망대 및 삼나무 숲 활용방안 등과 연계 방안 강구
- 완산공원을 기점으로 주변의 도시공원 간 연계 축 정비



완산칠봉 명소화 거점정비 구상도

☉ 기독교 생활문화관

○ 사업의 배경

- 전주의 역사문화자원 중 종교문화의 역사와 가치재고
- 기독교의 도입기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역사 문화적 기념시설 필요
- 기독교 문화 자원의 발굴·활용을 통한 도심활성화와 연계

○ 주요 시설 현황

- 전주 서문교회는 1892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 일행이 1893년 전주에 정착하여 설립한 교회의 모체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산실임
- 전주 예수병원은 1898년 설립된 병원으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의료 선교 기지로 서울을 제외하고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가는 시설과 의술을 자랑하는 곳이었음
- 전주 신흥학교는 1900년 9월 9일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레이놀즈 목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호남지방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었음



서문교회



예수병원(1910년대)



신흥학교 옛터

○ 사업의 내용

기독교 생활문화관
신축

- 기독교의 전파와 활동에 대한 역사자료실
- 생활문화로서의 기독교 체험·학습공간 조성

○ 사업의 효과 및 추진 방향

- 기독교 정신의 계승 및 전주의 전통문화 이미지 상승에 기여
- 기독교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 제공 등 민자 유치
- 일반 시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시설 및 기능 도입
- 도심활성화와 연계 가능한 입지 및 기능 도입 검토

2) 전통 생활환경 조성 사업

전통 생활가로 정비 사업

○ 사업의 배경

- 쾌적한 생활공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현재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정비
- 전통 가로 경관 조성을 통한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 제고



○ 사업의 내용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통행의 보차공존 도로 · 주차공간 확충 및 지중화 사업
쌈지공원 및 전통 조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쌈지 공원 조성 · 전통적 이미지의 조형물 설치
가로경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천~완산공원 녹지축 연계(삼나무) · 전통적 이미지의 가로시설물 설치



☀ 용머리 고개 골동품 특화 거리 정비

○ 사업의 배경

- 골동품 및 대장간 상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 골동품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전통문화 도시 이미지 제고
- 14개 골동품 상가의 활성화 노력 지원



골동품 상가



골동품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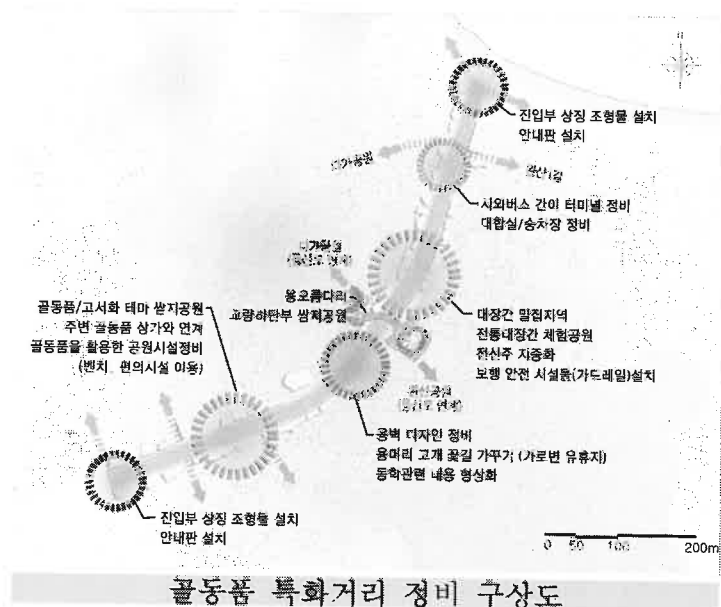
민속 대장간

○ 사업의 내용

보도 및 기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양을 활용한 보도 정비 • 가로시설물 정비(전통가로 경관 조성) •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정비
테마 썬지공원 및 조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동품을 테마로 하는 썬지공원 조성 • 가로변 기념 조형물 설치

○ 사업의 효과 및 활용방안

- 골동품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이미지 제고
- 상가활성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활성화 기대
- 골동품, 대장간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의 공간 활용
- 용머리 잇기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3) 시민자치 프로그램 지원·개발 사업

- 기존의 관 주도 및 전문가 주도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양
- 마을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 역량 강화
-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구분	내용
기본방향	· 마을단위 주민자치회 지원을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프로그램 중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원 · 주민주도의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
기대효과	· 시민참여형 도시가꾸기 사업의 기반 마련 · 지역주민의 유대감 증대 및 공동체성 향상 기대

어린이 전통문화 학교 운영

구분	내용
기본방향	·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활동 및 교육 지원 ·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내용	· 학기중 전통문화 관련 행사 지원(백일장 등) · 방학중 전통문화 교육 행사 지원
기대효과	·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주민 유대감 강화

마을훈장 육성 지원

구분	내용
기본방향	· 지역의 덕망과 신임있는 어르신을 훈장으로 위촉 ·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
사업내용	· 마을 훈장 위촉 및 교육 · 마을 훈장 활동 지원
기대효과	· 공동체 의식 향상 및 경로우대 사상 고취 · 개인주의 지양 및 주민자치 정신 함양

3. 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 단계별 사업 계획

-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며 단계별 시행
- 1단계 사업은 동학기념사업, 용머리 잇기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거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전통생활가로 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을 다지도록 함
- 시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은 완산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여 추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사업	세부사업	1단계			2단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역사·문화 자원 발굴·활용	동학기념사업	설계 및 건설			관리 및 운영	
	용머리 잇기	설계 및 건설			관리 및 운영	
	완산칠봉 명소화 사업	의견수렴 및 방향설정			설계 및 건설	
	기독교 생활문화관	의견수렴 및 방향설정			설계 및 건설	
전통 생활환경 조성	전통 생활가로 조성	설계 및 건설			관리 및 운영	
	골동품 특화거리 조성	상가 자체 활동			설계 및 건설	
	주거문화 계승·발전사업	의견수렴 및 제도 정비			사업 시행	
시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시범사업 시행			확대 실시	
	전통문화학교 운영	시범사업 시행			확대 실시	
	마을훈장 육성	시범사업 시행			확대 실시	

III. 소요자원 및 예산

1. 전체사업 규모 및 예산 내역

- 전체 규모는 198억 규모임
- 1단계사업은 2008~2010년까지 우선 추진하며 전체 사업비의 71.9%인 140억 규모임
- 2단계사업은 1단계 사업의 추진과정 등을 감안하여 2011년 이후 추진함

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및 금액(백만원)	총액 (백만원)	단계
역사·문화 자원 발굴·활용	동학기념사업	동학기념마당 : 4,010 동학체험루트 : 31	4,041	1
	용머리 잇기	육교건설 : 3,800 광장 및 기념시설 : 700	4,500	1
	완산칠봉 명소화 사업	편의시설 및 삼림욕장 : 200 방공호 정비 : 560	760	2
	기독교 생활문화관	건축비 : 915	915	2
전통 생활환경 조성	전통 생활가로 조성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 : 4,800 쌈지공원 및 조형물 : 364	5,164	1
	골동품 특화거리 조성	보도 및 기반정비 : 2,200 쌈지공원 및 조형물 : 532	2,732	2
	주거문화 계승·발전사업	전통한옥 보존 지원 : 400 전통한옥 신축·수선 지원 : 400 창의적 건축물 신축 지원 : 350	1,150	2
시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원 : 150 마을가꾸기 지원 : 150	300	1
	전통문화학교 운영	방학프로그램 지원 : 90 학기프로그램 지원 : 90	180	1
	마을훈장 육성	훈장교육 지원 : 30 훈장 활동 지원 : 30	60	1
총액(백만원)			19,802	

IV. 기대효과

● 사업의 공헌도

- 본 사업은 전주시의 도시발전 전략인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도시의 기반이 강화될 것임
- 특히 지역의 풍수지리, 역사적 사건 등 지역의 역사·문화적 유전자를 활용한 사업 전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임
- 또한, 동학기념마당 및 용머리고개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주민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민주도의 도시 가꾸기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임

● 사업의 파급성

- 본 사업은 도심 공간의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을 통한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향후, 전통문화자원의 산업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심-주거지-도시공원간 연계를 통한 전통문화 기반 강화를 통하여 도심부의 면적인 정비와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도심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의 시급성

- 사업대상지역은 역사·문화적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도시성장과정에서 소외되면서 도시내 공백지역으로서 기반시설·주택 등의 노후화와 상권침체 등과 같은 지역의 활력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사업, 도시 주변부의 신규개발사업 등의 진행과 함께 도시 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의 활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또한, 도심주변의 도시공원지역은 고대~근대에 걸치는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도시공원의 단절에 의한 접근성 저하 및 역사자원의 발굴·활용에 대한 정책의 결여로 역사적·장소적 가치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며, 본 사업에서 제시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활용 사업 및 공원간 연계 축 정비를 통해 접근성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역사를 체험·학습할 수 있을 것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그 의미

신순철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확인하고 되살릴 수 있는 역사공원(광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 논의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지역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들은 전주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지역과 도시들에서 일종의 봄처럼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주도하는 글로벌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지구촌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자유와 능력 위주의 경쟁을 기치로 내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인간 삶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들 삶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이면(裏面)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21세기 들어 개인이나 집단, 국가나 지방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찬찬히 더듬어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 글로벌화의 이면(裏面)에 도사린 인간 삶의 획일화가 그 주범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매우 현상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삶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한 예로 21세기 초입의 서울이나 도쿄, 워싱턴, 런던 등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사각의 콘크리트 건물인 아파트나 PC방에서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삼성컴퓨터를 켜놓고 스타그래프트에 열중하는 모습과 손에는 핸드폰, 발에는 나이키, 마음속에는 마이클 조던 혹은 니콜 키드먼을 동경하는 모습..."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의 이면에 도사린 위와 같은 획일화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종내는 삶의 내용까지 규정해버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1세기 들어 부쩍 부각된 각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각 지방별로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들이 봄처럼 일어난 것이 위와 같은 세계사적 흐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되살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연계시키는 것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추진되는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꼭 이루어져야할 뜻 깊은 사업임에 틀림없다.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동학농민혁명은 지금 전북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되고 있다. 지난 1994년 1백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 사건은 한 시대의 불운한 반란사건에서 한국 근대사의 서장을 열었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백주년 이전까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가 일부 진보적인 역사학계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국에서 펼쳐진 1백주년 기념사업에 힘입어 지금은 국가가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2월 제17대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실로 한 세기만에 그 역사적 지위가 공인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기념사업은 전북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충북 보은, 강원도 홍천, 전남 진도, 충남 공주·태안, 전북 남원·고창·완주 등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정체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다.

1백주년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펼쳐진 기념사업은 역사의 뒀안길에 버려진 채 극심하게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을 한국근대사의 여명을 연 기념비적 사건으로서의 재조명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되고 있는 기념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역정체성 회복과 주민들의 삶과 연계성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 기획,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시켜 지역정체성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 반드시 해당지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실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흐름을 살피고 재해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박제화 된 기념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발표문에서는 전주와 동학농민혁명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1)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1894년 4월 27일(양력 5월 31일)이었다. 전날 금구현 원평(院坪)에서 국왕 고종이 관군을 위로하기 위해 내탕금 1만 냥을 들러 보낸 선전관 이주호(李周鎬) 등의 목을 베고 반봉건의 의지를 새롭게 다진 동학농

민군은 전라감영이 자리한 전주성을 향해 진격을 개시했다.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때의 상황을 『동학사』에서 실감나게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

동학군은 장꾼들과 함께 섞여 이미 수천 명이 시장 속에 들어와 있었다. 때가 오시(午時)쯤에 이르자 장터 건너편 용머리 고개에서 일성(一聲)의 대포소리가 터져 나오며, 수천 방의 총소리가 일시에 장판을 뒤덮자 장꾼들이 정신을 잃고 뒤죽박죽되어 서문과 남문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는 바람에 동학군들은 이들과 섞여 문 안으로 들어서며 함성을 내지르고 총질을 했다. 서문에서 파수 보던 병정들은 도망질하기에 바빴다. 순식간에 성안에도 동학군의 소리요, 성밖에도 또한 동학군의 소리다. 전대장(=전봉준)은 유유히 대군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 선화당에 자리하니(이하 생략)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은 이른바 무혈입성(無血入城)이었다. 당시 전주성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전라감사 김문현은 4월 18일자로 이미 파면돼 있었고,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로 있던 김학진(金鶴鎭)이 후임으로 임명됐으나 아직 부임치 않고 있었다. 또한 감영군은 초토사 홍계훈 군에 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감사 김문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형편이 못되었다.

농민군은 동문을 제외한 서·남·북문을 공격해 들어왔으며 황룡촌 전투에서 노획한 대환포(大丸砲)를 발사하면서 서문을 집중 공략하였다. 그러자 곧 성문이 열렸고 전봉준은 전라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宣化堂, 현재 구 전북도청 본관 뒤 2층짜리 부속건물 자리)을 접수했다. 이 때 전 감사 김문현은 체통도 잊은 채 가마를 버리고 떨어진 옷과 짚신으로 변복한 뒤 동문을 빠져 나가 공주(公州)까지 도주하였다. 달아난 자들은 김문현 뿐 아니었다. 중영장(中營將) 임태두(林泰斗), 판관 민영승(閔泳昇)도 목숨 도모하기에 바빴다. 이런 경황 중에 조경묘(肇慶廟)의 참봉 장효원(張孝遠)은 경기전(慶基殿)에 모셔져 있는 태조의 영정(影幀)을 둘둘 말아 허리에 꽂고 조경묘에 있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의 위패를 안고 위봉산성(威鳳山城, 지금의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소재하고 있는 산성)을 향해 내달렸다. 홀로 달아나던 판관 민영승은 장 참봉을 발견하고 어용을 재빨리 넘겨받아 위봉사 대웅전에 모셨다. 성을 버렸다는 죄를 훗날 면제받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선화당에 자리한 전봉준은 농민군의 대오를 정비하여 4문을 굳게 방비하는 한편 기강을 세우며 농민군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갔다. 이들은 성 안에서 검가(劍歌)와 검무(劍舞)를 즐겼으며 옷감을 거두어 오랫동안 갈아입지 못한 옷을 새로 지어입기도 했다.²⁾

한편 전봉준의 계략에 말려 전주에서부터 5백여 리를 뒤쫓아 다닌 홍계훈의 경군은 전주성이 함락된 27일야 금구에 도착해 “전주성이 비도의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는 전주성이 점령된 이유에 대해 “감영의 관속배 중 내용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점령은 동학농민혁명의 전 기간을 걸쳐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이자 최고의 승리였다. 당시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도의 심장부였으며

1) 吳知泳, 『東學史』(영창서관, 1940), 123쪽.

2) 남원유생 金在洪, 『嶺上日記』 참조.

전라도 53개 고을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고을, 즉 수부(首府)였다.³⁾ 따라서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중앙조정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곧 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전부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2) 완산(完山)전투의 전개

전주성을 점령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은 1차 목표를 달성했다. 3월 21일의 무장기포(茂長起包) 이후 한 달여 남짓 전라도 서남부지역 군현을 차례로 점령하며 치밀한 작전으로 홍계훈의 경군을 유인한 뒤 1단계 목표로 삼았던 전주성을 마침내 함락시킨 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농민군은 전주성에 이르는 동안 유인작전으로 경군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으나 전주성 입성 이후에는 경군과의 정면 전투가 불가피해졌다. 동학농민군과 관군 간에 전주성을 둘러싸고 완산칠봉 일대에서 벌어진 완산전투는 향후 동학농민혁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됐다.

농민군의 뒤를 추격해 온 홍계훈의 경군은 4월 28일 전주 용머리고개에 도착했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한 다음 날이었다. 경군은 바로 완산에 진을 쳤다. 내칠봉(內七峰) 외칠봉(外七峰) 좌우칠봉(左右七峰)의 삼면 칠봉으로 이루어진 완산은 최고봉이 해발 186m밖에 안되지만 전주성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였다.⁴⁾ 전주성 남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완산칠봉 일대의 요소요소에 주력부대를 배치한 경군과 성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군이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함으로써 전주는 일촉즉발의 전운 속에 휩싸였다. 현재, 갑오년 당시 완산전투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전투전개 과정은 물론 몇 차례 접전이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못하다. 남아 있는 기록들이 이 부분에 관해 극히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고, 기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완산전투는 대체로 3차례 큰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민군 토벌을 진두지휘했던 초토사 홍계훈은 완산전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전투 상황을 보고하고 있지만, 『임하유고』,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일

3) * 전주성(全州城): 1894년 4월 27일, 농민군이 공격하여 점령했던 전주성은 오늘날 흔적조차 없다. 1894년 당시만 해도 돌로 쌓은 성곽과 4대문의 위용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이 같은 전주성이 헐린 것은 1906년경으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성벽 철거가 시작돼 불과 2-3년 사이에 타원형을 이루며 고도를 감싸던 성곽과 서·북·동 문도 아울러 사라져 버렸다. 전주성에 관한 기록은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完山誌』에 따르면, 둘레가 5,356자, 높이가 8자였다고 한다. 오늘날의 시가지 위에 복원한다면 현재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풍남문에서 서쪽으로 다가동 파출소 부근을 지나 피카더리 극장과 오거리의 중간부분을 가로질러 동문사거리에서 다시 풍남문으로 연결하는 타원형 고리가 될 것이다. 중심은 전주우체국 근처이며 반경 5백m가 예상된다. 1백 년 전 전주는 오늘날에 비하면 왜소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4) 전주성 공략을 위해 홍계훈의 경군이 결진한 장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는 남산(南山) 건지(乾止), 소기린봉, 오목대, 황학대(현 다가산) 등 여러 곳에서 길게 진을 폈다고 했으며, 일제강점기인 1943년 발간된 『전주부사(全州府史)』는 완산, 다가산, 사직단(현 기전여고 자리), 유연대(현 기전여고 북서 최고봉) 일대와 산과 계곡을 이어 결진하고, 본영을 용머리고개 남쪽 산 중턱에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을 따름이다.

건(朝鮮國東學黨動靜ニ関シ帝國公使館報告一件)」⁵⁾ 등의 자료에서는 3차례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에 나타나는 큰 전투 외에도 전주성을 둘러싼 작은 접전은 농민군이 성을 비우는 5월 8일까지 여러 차례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수성(守城, 농민군), 공성(攻城, 경군)의 입장이 서로 바뀐 농민군과 경군 간의 완산 전투는 경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홍계훈의 경군은 28일의 완산 결전과 함께 곧바로 농민군이 주둔한 전주성을 향해 대포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농민군 수백 명이 성을 나와 동서로 완산칠봉을 오르려 했으나 저지당했다. 이날 상오부터 날이 저물도록 양 군간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날의 전투 결과에 대해 홍계훈은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고 천보총을 쏠 수 있는 자 30인을 포함 수백 명의 적을 참획했다”고 하면서 경군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계훈은 또 “이 날 한 밤 중에 동학농민군이 성내의 건물에 불을 질러 관청과 민가가 소실됐다”고도 보고했다.

4월 28일의 전투 결과를 담은 자료로는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남긴 『양호전기(兩湖電記)』, 『양호초토등록』만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 자료가 자신의 전공(戰功)을 자랑하기 위해 홍계훈이 과장 보고한 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전후하여 새로 발굴된 자료⁶⁾에는 완산전투 결과에 대해 홍계훈의 보고 내용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서 완산전투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홍계훈은 또 위의 기록에서 “농민군 측에 의해 관청과 민가가 소실됐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보고 역시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홍계훈의 보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증거로, 농민군 측은 5월 4일자로 홍계훈에게 보낸 소지(訴志)에서 “경군의 포격으로 경기전이 훼손됐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전봉준도 1차 재판에서 “관군이 성중을 향해 대포를 쏘아대서 경기전이 훼손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민군 측뿐만 아니라, 농민군과 반대 입장에서 있던 정석모(鄭碩謨)의 『갑오약력』에도 보인다. 『갑오약력』은 “경군의 포격에 의해 성 밖에 있던 자신의 집을 포함 성 안팎 수천 호가 불탔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홍계훈의 전과보고는 허위 또는 과장된 보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주성 남문인 풍남문으로부터 2백m 거리의 동쪽에 위치한 경기전 훼손문제는 이후 농민군과 관군 간의 화약조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전투 당시 이미 위봉산성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란 점에서 경기전을 양 측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월 29일과 30일에는 큰 전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9일 농민군이 북문으로 나와 황학대를 공격할 때 관군이 회선포를 쏘아 농민군 수백 명을 사살했다고 『오하기문』만이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농민군과 경군 간의 본격적인 전투 개시 일자를 『전주부사』는 5월 1일로 잡고 있다. 1943년에 일본어로 발간된 『전주부사』는 집필자의 이름 없이 「동학의 변란과 전주」라는 제목으로 완산전투 상황을 소상히 담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기로 한다.

5)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 문서번호 5門 3類 2項 4號.

6)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가 중심이 되고 있다.

5월 1일 상오 10시께 동학농민군이 남문을 열고 미전교(싸전다리-지금의 전주교)를 건너 남북 2대로 나뉘어 완산 주봉(主峰)에 있는 관군을 향해 돌진했다. 남쪽으로 향한 1대는 순창으로 통하는 길로 나아가 남고천(南固川)을 건너 곤지산(坤止山) 서쪽 계곡을 타고 북진하고, 나머지 1대는 전주천 좌측을 따라 완산동에 들어가 곤지산 북쪽 계곡으로부터 주봉으로 공격해 올라갔다. 이들 두 부대는 합세하여 매곡(梅谷) 건너편 주봉 서편에 솟은 건두봉(투구봉-현 전주 교대부속국교 뒷산)에 포진한 관군을 기습하려 했다.

농민군은 창·대창·화승총을 들었고 그 중 무기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소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진격했다. 농민군은 탄환을 물리친다고 황색바탕에 붉은 글씨로 주문(呪文)이 기록된 종이를 등에 붙이고, 수십 명씩 집단을 지어 절면에 백포(白布)를 펴 높이 세운 채 수십 백의 대오를 만들었다. 농민군은 비 오듯 퍼붓는 탄환 속을 주문과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다. 동료의 시체를 넘으며 멈추지 않고 계속 진격하는 농민군의 기세에 놀려 관군은 겁을 먹고 도망하려 했다. 그때 후방 완산 주봉에 도착한 강화군(江華軍; 江華兵)이 내려와 지원함으로써 농민군은 큰 타격을 받고 전주성으로 돌아갔다. 상오 10시부터 하오 4시까지 벌였던 이 날 싸움으로 동학농민군의 시체는 매곡을 가득 메웠다.

『전주부사』는 1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전투상황을 소개한 이 같은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전투일자와 전투장소의 정확성은 몰라도 완산전투의 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내용으로 평가할 만하다.

5월 1일 전투에 대해 『오하기문』은 “남문으로부터 적의 대부대가 몰려나오자 관군이 회선포를 쏘니 적은 위력에 놀려 도로 달아나고 죽은 자가 3백이나 됐다”고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황현은 5월 2일에도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일 적이 서문을 열고 몰려나와 바로 용두(龍頭)의 진을 범하려 하였다. 관군이 또 포를 쏘아 계속해서 공격하자 적은 저항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포환에 죽은 자와 상한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이 날 싸움에서 관군이 농민군의 깃발과 백포장을 빼앗고 죽은 자 중 남색 기를 든 어린 아이도 있었다고 『오하기문』은 기록하고 있다.

농민군과 경군 간의 사활을 건 대접전은 5월 3일에 이루어졌다. 농민군은 이 날 상오 10시 무렵에 서문과 북문으로 진출해 사마교(司馬橋, 지금의 다가교 자리)와 부근 하류를 건너 유연대를 공격했다. 농민군의 위세에 놀린 유연대 주둔 경군은 남쪽으로 도주했고 이를 추격한 농민군은 일거에 다가산을 점령한 뒤 경군의 본영이 있던 완산으로 육박해 들어갔다. 이날 농민군의 모습에 대해 황현은 “선봉 이복용이 큰 기를 세우고 유연대로부터 황학대를 지나서 바로 완산으로 나와 죽 늘어선다. 그러나 적들은 다만 좌우만 보고 앞뒤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자가 자빠져도 뒤에 가는 자는 알지 못했다. 다만 용맹만 믿고 허위적거리며 오르는데 그 날램이 몹시 날카롭다”고 그려놓고 있다.

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해 설욕을 노리던 농민군은 이날 전투에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전주성으로 다시 후퇴했다. 이 날 전투에서 농민군은 전봉준이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고 동장사(童壯士) 이복용(당시 14세)과 용장 김순명(金順明)을 잃었다. 『오하기문』은 이 날 싸움에서 2백여 명의 농민군의 머리가 잘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홍계훈은 5백여 명의 농민군을 살해했다고 조정에 보고했다. 그 외 대장기와 총검 5백여 자루를 빼앗았으며, 농민군의 반은 도망하였고, 나머지는 중상을 입은 자들로서 성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홍계훈은 그 전과를 자랑했다. 이 같은 보고에 대해 홍계훈의 경군을 지원 감독하기 위해 전주에 파견되어 온 순변사 이원회(李元會)는 홍계훈이 섬멸했다고 하는 동학농민군은 모두 피난한 백성들이라고 정부에 보고했다. 홍계훈이 올린 전과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홍계훈이 보고한 전과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날 전투에서 농민군의 손실은 경군보다 컸으며,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일 전투를 끝으로 동학농민군이 8일 전주성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양 군 간에 더 이상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농민군 측의 기세가 5월 3일 전투에서 한 풀 꺾였음을 시사한다.

이상 세 차례에 걸친 완산전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관변 기록과 오지영의 『동학사』 기록이 서로 엇갈린다. 오지영은 “여러 날을 두고 싸우던 중 동학군 1대가 금구 원평으로부터 청도원 고개를 넘어 완산칠봉 서남방면으로 들어오고, 또 1대가 순창에서 임실 등지를 거쳐 완산의 동남방을 에워싸는 바람에 관병은 이에 사면에서 적을 맞아 매우 곤란하게 되었으며 식량보급도로가 끊겨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들어섰다”⁷⁾고 기록하고 있다. 관측 기록은 이와 달리 농민군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계훈은 5월 3일 전투 이후 퇴각한 농민군이 자중지란에 빠지고 성을 굳게 지키며 총도 쏘지 못하고 전봉준이 죽었다고 연일 선전하며 살기를 애걸했다고 보고했다.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관한 홍계훈의 이 같은 보고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지만 3일 대접전 이후 농민군 진영이 크게 흐트러졌음은 분명하다. 농민군 중에 도망자가 속출했고, 일부에서는 전봉준을 잡아 홍계훈에게 바치고 목숨을 빌어보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동요를 보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전주성 점령 10일 만인 5월 7일의 전주화약을 계기로 결국 경군에게 성을 내주기에 이른다.

3) 전주화약(全州和約)의 성립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천명하며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기포(起包)한 지 한달 여, 파죽지세로 전라도 서남부지역을 장악하며 물밀듯 지쳐 올라온 농민군이 마침내 전주성을 함락한 때는 4월 27일이었다. 그러나 황토재·황룡촌 전투의 눈부신 승리에 이어진 전주성 입성의 쾌거로 하늘을 찌를 듯한 농민군의 전주성 수성(守城)은 10일 만에 끝나기에 이른다. 남쪽에서부터 농민군의 뒤를 쫓아온 홍계훈 부대와 벌인 접전에서 농민군은 지금까지의 싸움과는 달리 열세를 면치 못했고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면서 전열에 큰 타격을 입은 때문이었다. 전주성 입성 다음날인 4월 28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치러졌던 전주성을 둘러싼 공방전, 즉 세 차례에 걸친 완산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농민군은 마침내 5월 8일 전주성에서 자진 철수하여 해산하기에 이른다. 바로 이 ‘농민군 자진 철수’를 있게 한 바탕을 학계는 ‘전주화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때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이 27개 조항이었다. 전봉준 장군을 재판한 판결문에는 분명히 27개 조목의 개혁안을 홍계훈에게 요구했다고 전하고 있으나 어찌된 이유인지 14개항만을 수록해 놓고 있다. 14개 조목의 폐정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오지영, 앞의 책, 125쪽.

1. 전운소(轉運所)를 혁파(革罷)할 것
2.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3. 보부상인들의 작폐(作弊)를 금할 것
4. 도내 환전(還錢)은 구(舊)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를 상납한 기간에 각 포구 잠상(潛商, 외국상인과 그들의 수하인 매판상인들)의 미곡 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洞布錢)은 매호(每戶) 봄가을로 2량(兩)씩 정할 것
7. 탐관오리들을 아울러 파면시켜 내쫓을 것
8. 위로 임금을 옹패하고 관작을 팔아 국권을 조롱하는 자들을 아울러 축출할 것
9. 관장(官長)이 된 자는 해경(該境) 내에 입장(入葬)할 수 없으며 또 논을 거래하지 말 것
10. 전세(田稅)는 전례에 따를 것
11. 연호(煙戶) 잡역을 줄여 없앨 것
12. 포구의 어염세(漁鹽稅)는 혁파할 것
13. 보세(洑稅)와 관답(官沓)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에 원이 내려와 백성이 산지(山地)에 근표(勤標)하고 투장(偷葬)하지 말 것

이상으로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 주력부대의 전주성 점령과정, 점령 이후 경군과 세 차례 걸쳐 벌인 완산전투의 경과, 전주화약의 성립과정과 전주화약의 조건으로 농민군 측이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했던 폐정개혁안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기간은 4월 27일에서 5월 7일까지 만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그 역사적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년 이상에 걸쳐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서 농민군 측이 거둔 승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즉 농민군 측에게 있어 최고의 승리, 최대의 승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중앙 조정에서 파견된 최정예부대인 경군과 맞서 세 차례에 걸친 전투를 통해 농민군 측의 역량과 위세를 한껏 과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홍계훈이 남긴 두 자료(양호전기, 양호초토등록)에만 의존하여 경군 측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백주년을 전후하여 새로 발굴된 자료들에 따르면, 홍계훈의 전과보고는 상당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농민군은 세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굳이 표현하자면 무기나 전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의 전투를 벌였다고 본다.

셋째, 세 차례에 걸친 대전투를 통해 나타난 농민군의 역량은 청일 양국 군의 출병을

저지하려는 중앙조정, 그 같은 중앙조정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던 초토사 홍계훈에게 농민군 측과 화의(和議)를 모색하게 함으로써 '전주화약'을 탄생시켰다. 전주화약은 한 마디로 외세(外勢)의 위협 앞에 농민군과 경군이 '민족대단결'을 과시했던 역사적 대화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전주화약 성립 과정에서 전주성을 자진 철수하는 조건으로 초토사 홍계훈에게 27개조에 이르는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을 요구함으로써 농민군이 꿈꿨던 새 세상에 대한 개혁 청사진을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이 폐정개혁안은 정치 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혁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외세(반외세) 자주국가 건설, 동학에 대한 공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자유보장까지를 망라함으로써 개화파가 주도한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섯째,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 각 군현에 농민군의 자치기구인 도소(집강소) 설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이 전라도 각 군현에 설치했던 도소(집강소)는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시원(始原)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농민군의 자치기구인 도소(집강소) 체제는 바로 전주성 점령을 계기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 맺는 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서문이다. 따라서 완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통문화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할 당시의 역사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전주 서문이 갖는 근대사의 흔적들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것을 통해 그 역사적 의미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서문은 전주의 근대 100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문(패서문)은 남문(풍남문)에 비해 역사적 조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군이 서문을 통해 입성한 때로부터 그 이후로 이어지는 전주 근대사 100년 속에 서문은 전통과 현대가 가장 극적으로 만난 역사적인 공간이다. 말하자면 전주의 서문은 전주 근대사의 관문인 셈이다. 실제로 서문을 나서자마자 만나는 곳이 서문교회다. 서문교회는 전북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기록된 교회다. 서문교회를 지나 다교를 건너 전주천을 넘으면 신흥학교가 있고, 신흥학교 뒤로는 예수병원이 있다. 서문교회-예수병원-신흥학교는 모두 전북(전주) 근대 1백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번에 건립될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광장)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했던 반외세 반봉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투철한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기치로 내세운 "사람이 곧 하늘이

다”는 차원 높은 인간평등사상까지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이 이루어졌던 날이 ‘서문 밖 장날’이었다는 사실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 되살리는 방안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장날의 혼잡 틈타 전라감영군을 혼란에 빠트렸고 농민군들은 장꾼들 속에 섞여서 움직이면서 성안으로 잠입, 무혈입성 했다. ‘장날’은 민중성과 해방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다. 전주성 입성에서 서문 밖 장날의 상징적 의미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로였던 서문과 서문교회, 신흥학교, 예수병원을 연계시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면 전주의 근대사를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범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